

( 대중이 보는 '거울' 이자 '나침반' 으로서의 역사 만들기 )



역사학연구소 사무국장 연정은 씨(왼쪽), 연구실장 이임하 씨(오른쪽).

역사학연구소 사무국장 연정은, 연구실장 이임하

그동안 내가 접해 온 역사는 올바른 것이었  
던가? 올바른 역사관에 의해 쓰인 것인가?

지난 1990년 역사학연구소가 내놓은  
《바로 보는 우리 역사》(약칭 바보사)는 이  
러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로부터 14  
년이 흐른 2004년, 《바보사》가 복간되어  
다시금 독자들 앞에 섰다.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갖고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서가 국가와 왕조의 흥망성쇠를 중심  
으로 서술한 데 반해, 이 책은 '일하는 사  
람', '노동하는 사람' 을 역사의 주체로 설  
정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인식을 정립하게  
만든 책임입니다. 이 책을 '바보사' 라고 약칭  
하는 데는, 지금껏 지배자들이 항상 무식  
하다고 깔보며 짓밟아온 '민중의 역사' 를  
참되게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역사학연구소 이임하 연구실장의 설  
명이다. 1988년 11월에 창립해, 현재 40여  
명의 역사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역사  
학연구소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  
여 왔다.

“대중을 위한 역사책을 펴내고, 대중

역사 교육을 통해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를 더욱 쉽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지요.”

그러나 대중들이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역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갑절의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했다. 역사학연구소는 무조건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 사회, 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작업을 공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되도록 역사 기술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하나의 흐름, 즉 민중적 입장에서 서술체계의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데 주력했다. 좁은 연구소 공간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쓰고, 돌려 읽고, 고쳐 쓰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작업이 한 달 이상 계속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사무국장 연정은 씨는 공동작업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대안이었다고 말한다.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차이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더 나아가 역사학연구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지요. 연구소 내의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논의하고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 역사학 연구소에서 펴낸 책들은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바보사》는 1990년 출간 이래 역사학자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역사서로서는 꽤나 높은 판매율이다. 《교실 밖 국사여행》도 출간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꾸준히 읽히고 있다. 특히 《바보사》의 경우 쉽게 읽히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반면에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것을 보충하는 의

미에서 기획, 출간한 책이 바로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다.

이씨는 “근현대사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며 삶의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오랫동안 역사교육과 역사연구 현장에서 밀려나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 입시위주의 역사교육과 대학에서조차 근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이들에게, 역사는 가장 정직한 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모쪼록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서 한국사회의 현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발간된 책들이,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역사학연구소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역사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발전방향을 찾는 경험의 보고’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역사학연구소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고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변화하는 원리, 사건과 사건의 인과관계, 다양한 현상의 본질에 대해 다루는 것을 역사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고 따로 떼어낸 사건을 고증하는 데 그치는 역사는, 단지 역사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그동안 역사학의 연구대상이 한정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역사연구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사연구를 강화해야 하겠지요. 비록 완성도 있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씨는 이를 위해 우선 연구소가 펴내는 전문연구지 〈역사연구〉의 내용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운동사, 50년대 연구, 여성사 등 주제별 모임을 활성화하고, 시사간담회 등을 통해 역사의 현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연구원들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메이데이 100년의 역사》와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등을 필두로, 서해문집에서 총 30권의 역사문고를 발간할 계획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들고 다니며 펼쳐볼 수 있으면서도 내용이 알찬 역사서를 만들어야지요. 때론 역사학연구소의 이름으로 혹은 연구원의 이름으로,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필자를 섭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사문고 외에도 《역사 속의 미래사회》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현황과 전망》 《우리 역사를 찾아서》가 곧 출간 혹은 복간되거나, 현재 필자들 중심으로 개정작업이 계획된 상태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을 담은 역사서.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로’ 보려는 노력이 계속될 때, 비로소 역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취재 류은영(자유기고가)·사진 박신우 기자

